

“친환경 양식 늘자 갯벌과 바다가 살아났다”

장흥군 친환경 수산물 직불금 전년대비 527% 증가 김성 장흥군수 “국민들에 안전한 먹거리 제공할 것”

장흥군은 10읍면 가운데 5개 지역이 바다와 접해있는 고장이다. 갯벌이 발달한 이곳에서는 김과 매생이, 키조개와 새꼬막 등 해조류와 패류가 많이 생산된다. 장흥군은 바다를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친환경 무산김 양식을 시작했다. 유기산을 사용하지 않은 무산김은 ‘착한김’으로 주가를 높이며 어가 소득 향상에 효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김 양식에 ‘산’ 사용을 멈추자 바다가 응답했다. 바다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잘피 군락지가 확산되어 어류의 산란장이 늘어난 것이다.

새조개, 바지락, 키조개 등 패류 어획량도 증가했고, 이는 낙지 등 다른 어종까지 생산량까지 늘렸다. 장흥군은 여세를 살려 친환경 어업 확대와 바다환경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장흥군 친환경 수산물 직불금은 2021년 32어가 6억원에서, 2022년 162어가 35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전년대비 527%가 증가한 셈이다. 군은 청정해역 생태복원을 위해 양식어장 정화사업 및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수거에는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단체와 어민들까지 폭 넓은 참여를 보이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청정해역 갯벌생태산업 특구의 명성에 걸맞게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건강한 바다 생태계를 지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마련한다

완도군이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인 해양 바이오산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해양바이오 기업 연구소 및 스타트업 유치’, ‘해양바이오 소재 산업 공급 기지 조성’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조류를 비롯한 해양 생물에서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 건강 기능 식품과 의약품 소재, 화장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완도군은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자 220억 원을 투입하여 기업 연구소 10개소, 스타트업 30개소가 들어서는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를 내년 6월 정상 운영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다. 연구소는 해양바이오 소재 및 시제품 개발을 하는 공간으로 공동 실험실, 연구실, 회의실 등을 제공한다. 군은 지난 7월, 공동 협력 연구소 입주를 희망하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전남도와 함께 바이오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갖고 완도 해양바이오 산업의 강점을 피력했다. 지난 8월에는 국토교통부 주관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공동 협력 연구소 연구자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바이오산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료 소재 확보와 대량 생산, 고차 가공을 위해서는 관련 시설 구축이 필수적이다. 해양바이오 소재 산업 공급 기지를 조성하고자 ‘해조류 활성 소재 인종·생산 시설’을 설계 중에 있으며,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팜’ 구축을 계획 중에 있다. ‘해조류 활성 소재 인종·생산 시설’은 해조류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 바이오 원료 소재를 공급하는 시설로, 250억을 투입해 해조류 탈염 및 증류수 제거 등 전처리 시설과 생산·품질 관리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이며,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팜’은 계절 변화에 따른 수온 변동 등 계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고기능성 해조류를 연중 생산하는 시설로, 사업비 200억의 규모로 신지면 해양바이오 연구 단지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양식 가능 품종 선별 및 경제성 분석, 시설 운영 방안 등 구축·운영 계획 용역을 '23년 8월까지 완료 후 '24년도 국고 건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시설이 준공되면 소재 대량 생산, 원료 공급, 제품 개발의 통합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해양바이오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지속 가능한 산업과 맞물려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면서 “해양바이오산업을 통해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여 우리 군 미래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도군,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진도군이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방재정대상은 재정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행사로 전국 지자체의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169개의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총 3번의 평가를 치른 후 최종 선정된 10개 기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의 수상을 위한 최종 발표회를 가졌다. 군은 세입증대 분야에서 “잠자는 공공자금

깨우기! 우리는 금융전문가!”라는 주제로 최종 본선에 진출, 공공자금 운용혁신으로 이자수입을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를 이끈 모범사례로 높은 점수를 받아 대통령상과 시상금 5억 원을 수상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수상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공공자금 관리 모범대응 사례로 인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기자

2022년 강진군새마을지도자 대회 열려

근면·자조·협동 정신 다짐

지난 15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2022년 강진군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2022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새마을운동을 결산하고,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다시 다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1년간 새마을회에서 실시했던 사회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영상보고로 행사의 문을 열었다. 강진군새마을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강진원 군수의 격려사, 김보미 군의회 의장의 축사로 지역사회 봉사에 헌신수범해온 강진군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새마을회 운영 발전 및 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표창과 읍면 종합평가에 대한 시상도 진행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1명, 도지사 표창 1명, 강진군수 표창 16명 등 총 36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으며, 읍면종합평가로 강진읍이 최우수상, 도암면이 우수상, 마량면이 장려상을 받았다. 박종재 강진군새마을회장은 “내년에도 나눔, 봉사, 배려 정신을 바탕으로 군민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강진군민인 만큼, 소통과 존중, 배려의 사회적 자본 강화로 강진군민의 품격을 높이는 ‘꽃 보다 아름다운 강진사람’ 범 군민 운동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가뭄대응 농업용수 공급 협력체계 구축

해남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과 농업용수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뭄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은 15일 명현관 해남군수와 김진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해남군의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영산강사업단에서 관리하는 황산·문내·화원·맹진 양수장의 가동 기간을 당초 5~9월(수도작 기간)에서 3~11월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수도작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



면적에 따라 요금을 분담하고, 연장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남군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